

창조의 사랑

〈그리스도교〉에 관한 이야기를 간추려서 쉽게 요약한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혹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옛날에는 예수를 믿는다면 으레 〈천당에 가기 위하여서〉라고 대답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영원한 사후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덮어 놓고 현실을 무시하고 죽은 후에 저쪽 나라만을 바라다 보는 그러한 동기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죽은 후의 세상을 동경하는 만큼 이에 못지 않게 이 세상 안에서 참된 인간이 되는 생활을 모색하는 것이 신앙 생활의 참 길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 몸, 또 이 몸을 담고 있는 공동체, 국가, 사회,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이십세기 후반기에, 세계 기독교에서 나타난 새로운 경향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자기의 태어난 교장, 공동체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또 그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공동체를 떠나 유리된 것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고 그 믿음의 주체가 되는 신앙인이 공동체 속에 매몰되지도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신앙이 그 주어진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리스도〉교는 한 마디로 해서 사람을 위한 종교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 인간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돕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에 못지 않게 사람이 사람됨을 찾는다는 것이 주요하고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되는 길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 신인 관계와 인간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떠나서는 사람이 사람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교의 신앙은 이러한 <관계>의 신앙이다. 즉 인간 관계에서 열매를 맺는 일, 창조적인 인간 관계를 맺는 일이 <그리스도> 교 신앙의 근본인 것이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생활을 창조의 생활, 생산적인 생활이라고도 하겠다. 사람이 생산하려면 수족을 움직여서 활동해야 한다. 이렇게 손과 발을 움직여서 눈에 보이는 물건을 생산하게 하는 근본은, 인간 관계가 생산적이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인간 관계가 비생산적이 될 때 사람은 일을 해도 즐겁지 않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서 생산되는 것은 불안의 소산이 되어서 비뚤어진 생산만 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인의 소위 인간 소외 문제는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리스도교에서 죄와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 인간 소외를 가리키는 말이다. 죄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짓을 하는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죽음이라 해서 반드시 몸이 죽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소외 현상 속에서 즉 창조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일을 죄요, 죽음이라고 한다. 그런고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이러한 비생산적인 인간 관계에서 구원을 받는 것, 소외에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싸움의 연

속이라고 볼 수 있다.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무덤에 들어 가는 동안까지 인간은 부단히 시련과 도전 그리고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

현대의 한국 사회에는 특히 이러한 생존 경쟁에서 빛어지는 비극이 속출하고 있다. 매일 신문의 사회면에 반영되는 한국의 사회면을 아는 사람은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적자 생존은 인생의 법칙처럼 간주되고, 약자는 자연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사회 풍조가 형성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생활 속에서 <크리스천>이 자기의 진지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인격적인 통합을 이룩하는 생활을 하기가 대단히 힘들게 되었다. 교회 생활은 한낱 경건을 위한 개인 구제의 장소가 되고 교회 밖에 나오면 <크리스천>들도 이 사회 안에서 생존 경쟁의 판국에 뛰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암채 정신, 새치기 정신은 이러한 사회 풍조에서 빛어진 하나의 생활 태도이다. Erich Fromm은 이러한 태도를 비생산적인 태도라고 했다. 비생산적이라는 말은 결코 경제적인 면에서만 쓰이는 용어가 아니다. 인간 사회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비생산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데서 모든 인간의 자기 소외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인간의 소외의 관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 나가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구원의 근본적인 성격이다. 구원을 이룩한다는 것은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 전체적으로 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앙은 대단히 모험적인 것이다. 자칫하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상화하기 쉽기 때문이다.

수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곱곰히 생각해야 할 문제는 고난 저쪽에 바라다 보이는 승리의 생활이라는 것이다. 신앙은 고난 자체를 찬양하지 않는다.

금욕주의는 아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 들이고 체념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이 자기 소의를 극복하고 구원을 완성하는 계기로 받아 들인다. 이것이 아마도 <그리스도>의 고난 이해일 것이다. 고난은 그러한 의미에서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주신 심판의 손을 그에게 응답할 수 있는 기회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일에는 깊은 신앙적인 뜻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은 자연과 역사에서 받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너와 나>의 인간 관계에서 받는 고난도 있다. <그리스도>교회에서는 이러한 인간 관계에서 빚어지는 고난, 즉 긴장, 충돌, 좌절의 관계를 사랑으로 이기고 조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너와 나>가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자유임을 알고 그 자유를 자각하는 데서 <그대>를 위해서 생산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교의 사랑의 생활인 것이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교의 사랑에서는 먼저 자신의 깊은 자각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경험할 때, 자신에 대한 의식이 생겨지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자기가 한낱 고난의 희생물도 아니요, 운명적인 존재도 아닌, 존엄성을 지닌 피조물임을 알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교회에서는 이웃과의 만남에서 비로소 고난, 긴장, 충돌, 좌절을 경험

하고 또 이 경험에서 자기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사랑은 이웃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보고 그의 신비스러운 역사를 보게 된다. 이러한 신비스러운 역사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관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에 대해서 응답을 표시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사랑이다. 굶주림과, 질병, 전쟁과 불행 속에 허덕이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표시하고 도와주며 돌보며 키워주며, 섬기는 생활이 여기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생존 경쟁이 극심하고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투쟁 속에서 우리에게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은 이러한 사랑의 창조적인 생활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진정한 창조의 생활은 사랑에서만 있을 수 있다. 〈싸우면서 건설〉한 뒤에는 〈사랑하면서 건설〉하자는 것이 더욱 창조적인 생활일 것이다. 싸움에는 언제나 파괴적인 요소가 있지만 사랑은 언제나 건설적이며 창조적이기 때문이다. 사랑의 생활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관찰하고, 그 관찰에서 새로움과 놀라움을 보는 눈을 뜨게 된다. 평범한 사건 속에서 신비스러운 것을 느끼게 하며 진부하고 고식적인 것에서 무언가 새삼스러운 것을 보게 한다. 그리고 사는 일이 부담이 되지 않고, 보람을 느끼며 생을 즐겁게 한다. 현대와 같이 모든 가치 기준을 물질과 금전으로 바꾸어 두는 시대에서 다만 물질을 가지는 일에만 보람을 느끼는 일이 흔히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삶의 보람을 가지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보람과 뜻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물질 생활이 필요한 것이다. 사랑은 이러한 삶의 질서를 알게 하는 힘인 것이다. 그러기에 사랑이 없는 생

활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노예의 생활을 면치 못한다. 언제나 무엇에 구속을 받고 얽매여서 산다. 아무리 풍부한 생활 속에서도 이런 노예의 생활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인의 소외인 것이다. 소외가 된 생활에서는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여도 사는 일이 고달픈 것이 되고 만다.

현대인의 구원은 바로 이러한 소외에서부터의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간 소외에서부터의 구원은 다만 사랑의 인식과 이 사랑의 인식에서부터 자아의 주체를 회복하는 데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사랑만이 인간에게 창조적인 삶의 뜻을 깨닫게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러한 구원을 통해서 인간이 참 인간됨을 회복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